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Calvin's Geneva (Book Reviews)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45 no.1 (Spring, 1978):118-124

는 倫理的 規範으로서 合法性과 正當性을 意味하는 도덕성의 特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義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人間과의 내면적인 관계의 특성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라 본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義務에 충실하기 위하여, 곧 의무의 빛을 지고 있으므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인간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倫理를 가져야 함은 當爲이다. 그러므로 正義가 신앙과 윤리에 결부되어야 함은 확고한 것이며, 그 신앙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義롭다' 함은 義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뜻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義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고 하여 성도들의 義는 德의 完成보다는 죄 사함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義의 중보를 통해서만 義롭게 됨을 결단케 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義의 뜻은 인간적 정의에 대하여 규범적이며,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때에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면에 공정히 재판할 것이며 그들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적으로 들고 사람의 낮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으리라'(신 1:16-17)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義는 사랑과 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正義를 변형시키는 상태로 나타난다. 포도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보면(마태 20:), 먼 저 일하러 온 자와 뒤에 온 자가 똑같은 값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사로서 사랑이다. 그러므로 '내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옳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마 20:15)라고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이 세상의 질서와 정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正義를 규정지우는 높은 차원의 신앙과 사랑의 결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요 3:16)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 6:5-6) 하신 것은 사랑의 윤리를 하나님과 세상에 적용할 것을 명령한 것인데, 하나님

Calvin's Geneva

E. William Monter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67

申 福 潤 評

本書는 본래 Norman F. Cantor를 編輯人으로 한 New Dimensions in History: Historical Cities의 층서 중의 한 책으로 간행되었다. 칼빈의 思想的, 神學的 研究에 비해, 宗教改革 당시의 제네바市에 관한 研究書가 적은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여 오던 著者 Monter 博士는 본 서에서 칼빈의 時代, 저자가 표현하는대로, 이 英雄的인 時代의 제네바의 性格이 어떻게 形成되었는가를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제네바와 유럽의 여러 都市들을 比較함으로써 제네바의 成功을 탐색하고 드러내 보려고 한다.

사실 제네바에 있어서의 칼빈의 宗教改革의 빛나는 成功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올바르게 評價하기 위하여는, 칼빈의 思想과 神學을 연구하며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宗教改革은 분명히 종교운동이요, 새로운 宗教理想을 기초로 하는 教會建設 運動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비해서 宗教가 훨씬 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의 유럽 社會에 있어서는 宗教改革은 政治나 社會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하여

나갔던 것이다. 제네바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에 앞서 오랫동안 사보이公으로 부터의 政治的 獨立을 위한 투쟁이 있었으며, 宗教改革은 제네바의 政治的 獨立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政治革命의 一環으로 수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칼빈의 宗教改革은 이상과 같은 政治的인 狀況 속에서 여러가지 政治勢力과 싸우면서 수행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칼빈의 勝利가 確定된 것은, 그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위하여 活動한지 近 20年 후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의 宗教改革을 이해하며 평가하기 위하여는 당시의 제네바의 政治的, 社會的인 여러가지 狀況,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달성된 變化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本書는 가장 적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本書는 三部로 되어 있다. 이것이 다시 9章으로 分類되고, 附錄에는 "牧師會에 보내는 칼빈의 告別辭"와 "文獻解說"이 붙어 있다. 제 1부에서는, 16世紀初부터 1564年 칼빈이 죽을 때까지의 제네바의 歷史를 概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의 소란했던 제네바의 情勢와 그리고 칼빈의 反對派가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다. 제 2부에서는 칼빈時代의 제네바의 주요한 制度들과 社會集團, 다시 말하면 確定된 教會, 市政府, 그리고 外國으로부터 亡命 온 그리스도(들)의 社會를 다루고 있다. 제 3부에서는 제네바의 남적들은 칼빈의 뜻을 알고, 그 당시의 情勢

칼빈主義의 活動을 묘사한다.

著者は 칼빈을 직접 그려보려고 하지 않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環境을 통해서 그를 묘사하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제네바에 있어서의 칼빈의 權力의 基礎와 그를 成功으로 이끌어 간 重要한 理由들을 에세이 기술해 보려는 意圖를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칼빈의 勝利는, 대부분 그가 革命的인 都市共同體의 혼란한 狀況 속에서 빛나는 精神과 不屈의 意志를 투입한 結果였다.

本書는 엄격히 말해서 宗教改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저서요, 專門的인 研究書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著者가 본서에서 宗教改革 당시의 제네바에만 국한시키고, 그 거리의 建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여 지금 그때의 제네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대하여는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책이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한가지 약점이 있다고 하면 제네바의 政治史에 偏重하고 있는 까닭에, 칼빈의 神學思想에 대하여는 거의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칼빈의 宗教改革에 관심을 갖고 본서를 펴는 사람에게는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러나 칼빈을 직접 묘사하지 않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環境을 통하여 그려보려는 著者의 意圖를 알므로 단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총회신학대학 교수〉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I.E.S. Edwards, C.J. Godd et al., eds.

Volume II, Part 2, History of the Middle East and the Aegean Region Ca. 1380~1090 B.C. Thir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p. xxiii, 1125 \$37.50

李 石 佑 評

Ancient 12권의 Cambridge History 시리즈의 學的 價値와 신뢰도에 관해서는 再論의 必要가 없거나와 지난 60년 代 이후 論文形式으로 分册 出刊되었던 것들을 Volume II Ancient History의 I, II 두 권의 책으로 묶어 專門史家와 學生들의 손에 들어온 것은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 時間性의 顯來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確 유익한 일이다. 이번으로 第3次 編輯이니 이 시리즈는 오랜 세월을 걸친 것이고, 또 이 勞作들이 進行되어 온 동안에 W.F. Albright 교수 등 7명의 學者가 他界하고 論文形式으로 分册 出版된 후에도 또 이 畧本을 위해서 그 內容을 訂正하여 다시 쓰는 手筈을 한 學者도 數名이니 學問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또 精確한 畧本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示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Part II의 內容은

소개 비판하고자 한다.

이 책의 분량은 1200페이지에 달하고 이 일에 參與한 學者는 斯界의 權威로 이미 世界的인 認定을 받은 24명의 學者이며 本書에서 取扱하는 歷史時間은 1380으로부터 1090(B.C.)에 이르는 400 年이다. 이 동안은 이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文明이 그 完熟期에 들어갔다고 할 시기로서, 오리엔트 文化는 크레테(Crete)섬으로 擴大되어, 그리스 本土에 미케네 文明을 탄생시켰고, 지금의 터키共和國 아나톨리아(Anatolia) 地域에도 히타이트帝國 등이 서는 등, 바야흐로 그리스文明 탄생의 바로 直前 準備期이며 同時에 東西文化가 地中海 와 에게海라는 發판을 건너 서로 융합되는 시기다.

이때 이집트(Egypt)에서는 1580(B.C.)에 들어선 新王朝(18~20王朝)가 그 帝國主義的 擴大政策을 계속하고, 古라빌로니아가 카세이트族의 侵入으로 沒落하고, 暗黑時代가 계속되는 동안, 北쪽 아수르(Ashur)都市에서 앗시리아인들이 大帝國 앗시리아의 發돋음을 시작했다(1300~1200B.C.).

이 期間에 무엇보다도 특기할 事實은 지금까지 歷史舞臺에 등장하지 않고 있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Syria)가 그 國際 勢力關係에서 뚜렷한 地域國家로 부각되고, 人類歷史上 가장 劇的이고, ダイナミック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出埃及의 歷史的 事件을 出發點으로 1025(B.C.)年 사울(Saul)을 추대하여 最初의 히브리王國을 세우는 意圖를

는 기간이기도 하다.

要約해서 本書에서는 新王朝 이집트, 앗시리아 - 新라빌로니아(Assyria-Neo-Babylonia)의 태동, ฮิต타이트帝國(Hittite Empire), 米케네文化(Mycenaean Cultures)와 모세의 출애굽 및 히브리王國의 成立에 대한 歷史的 進行過程을 中心으로 다루고 있다.

앗시리아文學과 라빌로니아文學을 取 攻하는 예일(Yale)大學의 故 고에즈(A. Goetze) 教授는 시리아를 支配하려는 미타니王國(Mitanni)과 ฮิต타이트(Hittites) 그리고 이집트간의 갈등의 理由를 精確하게 分析하고 있다. 시리아는 北에는 아나톨리아(Anatolia), 南에는 이집트(Egypt) 그리고 東에는 유프라테스-티그리스流域의 肥沃한 半月形 地帶가 位置해 있어 地政學的으로 이 세 지역의 中心點이 되며, 이는 東南北間의 무역의 十字路가 될 뿐 아니라 시리아는 이웃 주변國家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地下資源을 갖고 있으며, 社會的, 人類的 諸條件까지 結合하여 항상 이웃 強大帝國들간의 紛爭의 對象이 되어왔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해, 시리아(Syria)의 運命은 이웃 強大帝國들의 浮沈과 密接히 關係되어 있다는 얘기다.

시리아地域에서 이집트가 가장 強力한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던 時期는 두트모시스III((Tuthmosis III) 때였는데 이후 1380년대인 아메노피시스III(Amenophis III) 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이름뿐인 支配權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1887년 이집트 El-Amarna에서 발

전된 書板에 기록되어 있다고 史的 資料를 提示하고 있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海岸지대와 팔레스타인, 다마스쿠스(Damascus) 地域은 이집트의 影響아래 있었고, 北部는 당시 투쉬라타(Tushratta)王 아래서 莫強한 帝國으로 成長하여 上메소포타미아 地域까지 다스리던 미타니王國의 支配 아래 있었다. 그러나 鐵器를 使用하며 小亞細亞 地域을 翫은 히타이트帝國(The Hittite Empire Ca. 1740~1400 B.C)의 슈피루마쉬(Shuppiliumash)王이 미타니帝國의 支配를 終息시키고, 그의 繼承者 무르쉬리쉬(Murshilish)는 10여년의 國內安定을 취한 후 시리아에 확고한 支配權을 確立했고(p. 123~126) 世界帝國으로서의 地位를 固히 守り 東과 西의 中樞로서 史的 功業을 完成하게 했고 그 힘은 小亞細亞의 全域에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히타이트가 當時 國際무대인 이 地域에 強者로 登場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타이트帝國의 單純한 힘의 作用으로 보지 않고, 當時 이크나톤(Akhenaten) 통치 아래 있던 이집트가 이 地域에 別 다른 관심이 없고 오히려 宗教改革 등의 國內문제와 씨름하는 힘의 空白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18王朝의 가장 이름 높은 파라오 이크나톤(Akhenaten, 또는 Ikhnaton) 이후 이집트는 시리아의 獨立을 維持시킬 수 있을 만큼의 充分한 軍事的 援助를 提供할 수 없었다. 시릴 알드레드(Cyril Aldred) 著 "아마르나 書板의 18 王朝의

終末"(Egypt: The Amarna Period and the End of the Eighteenth Dynasty)에서 이크나톤의 宗教改革의 性格과 그의 여러 業績을 批判적으로 評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의 改革動機가 純粹한 宗教의 側面에서 보아왔던 데 대한 異議를 提起하고 遷都한 首都 엘-아마르나(El-Amarna)에서 進行된 改革은 分明히 파라오(pharaoh)의 "絶對權과 榮光"을 높이려는 "復古的"(antiquarianism)인 것으로서 이크나톤이 주장한 "宗教思想은 王權의 伸張에서 보는 불가피한 政治的 介入"(p. 52)이었다고 보고 있다. 1320(B.C)년 18王朝의 後嗣가 끊어졌으므로 라메세스 I(Ramesses I)가 19王朝를 열었으나 별로 長지 못했고 1318년 세소스 I(Sethos I)가 登극하여 다시 이집트를 國際的 強大國의 地位에 올려 놓았다. 그가 王位에 오를 때에는 시리아에 대한 支配權은 물론 팔레스타인(Palestine)에 대한 影響力도 미미하여 심지어는 敵對關係에 있는 都市國家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圓境을 통해 이 地域에 대한 影響력을 회복했다. 포크너教授(R.O. Faulkner)는 이 사실을 說明하여 살두시키려는 態度보다는 카르나크(Karnak)神殿에 있는 諸記錄들을 提示함으로써 높은 學者的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집트의 國內 政治的 發展과 小亞細亞에서의 미타니王國과 히타이트帝國의 交替에서 오는 시리아(Syria)를 中心한 力學關係가 밀리고 밀리는 동안

—유프라테스—티그리스 流域에서는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強大國으로의 跳躍의 터를 닦고 있었다.

이 과정을 런던大學의 近東文明 名譽 교수인 C.J. 가드(Gadd) 교수가 第八章 "앗시리아와 바빌론"(Assyria and Babylon)에서 다루고 있다. 앗시리아의 登場은 카씨이트(Kassites)族이 古바빌로니아를 沒落시킴으로 시작된 黑暗時代(Dark Age)를 終結시키는 意味도 갖고 있었다. 앗시리아 세력의 重建者는 아수르—우바리트(Ashur-Uballit, 1365~30 B.C)王로서 그의 私生活에 대한 記錄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그는 軍略家이며 行政家로서 바빌로니아와의 關係에 和戰兩面作戰을 展開하여, 그의 딸을 바빌로니아의 王과 結婚시킴으로써 바빌로니아와의 關係 正常化를 통해 앗시리아 평창의 길을 닦았다. 이것은 앗시리아 發展에 劇적인 轉換點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以後 앗시리아에 미친 후리안族(Hurrians)의 壓力을 除去할 수 있었고, 바빌로니아의 영향과 함께 앗시리아가 法과 社會에 秩序를 갖춘 國家의 형태를 취하게 됐다(p. 34-33). 이외에도 앗시리아 세력 성장의 배경으로 經濟的 成長, 強한 軍事力과 아다드-니라리(Adad-nirari), 샬마네셀(Shalmaneser), 투쿨티-니누르타(Tukulti-Ninurta)王과 같은 精力的이고 傑어난 人物들의 指導力이 크게 作用하고 있음을, 80년 成長史를 자세히 論하는 과정에서 J.M. 뮌란킨(Munn-Rankin)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p. 271).

13세기에 걸친 이같은 軍事的 成長이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는데도 關心을 갖게 하여 많은 金石文의 資料를 오늘날에 傳受하고 있다.

近東에서 이같은 政治的 變化를 겪고 있는 동안에 에게해에 隣 내리델은 그리스 諸島 內의 미케네가 1480(B.C)年頃 크레타文明을 征伐하고 全 에게해 地域의 強大國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 또한 國際的 世력關係의 側面에서 보면 히타이트帝國이 시리아 등의 南部 諸國의 많은 神經을 쓴 반면, 그리스 地域에는 消極的인 政策을 썼고 또 當時의 퍼니키아는 軍事力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判點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本書에서 取扱하고 있는 기간은 미케네文明의 斜陽 시기인데 F.H. 스티빙스(Stubblings) 교수의 "The Recession of Mycenaean Civilization"과 데스보로프(Desborough) 교수의 "The End of Mycenaean Civilization and the Dark Age"가 이 쇠퇴기의 미케네 事情과 도리안族의 侵入 등으로 야기되는 黑暗時代의 背景을 充分히 그리고 仔細히 說明해 주고 있다. 사실 미케네文明의 最盛期와 그 沒落은 거의 時期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아가멤논 휘하에 聯軍이 트로이 城에 遠征을 떠나 는 것은 그 힘의 強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時代의 史詩는 호머(Homer)의 일리아드(Iliad)와 線文字 B(Linear B) 그리고 스티빙스의 발굴 등이지만 당장 考古學 資料가 豊富하고 學問

스(Stubblings) 교수는 그 時代를 1200 (B.C)경으로 잡고 히타이트 텍스트(texts)와 이집트측의 史料까지를 들어 說明하고 있어 이 시기가 가장 適當한 年代로 보인다.

J.M. 쿡(Cook) 교수는 그리스 暗黑 時代 以後 이오니아人, 도리아人, 에오 리아人 등의 移動과 定着을 다루어 앞으로 헬레네 文明의 예비段階를 다루고 있지만 이 時代가 갖는 史料의 制限 때문에 그리스語와(John Chadwick 교수) "歷史로서의 호머詩"(G.S. Kirk 교수) "그리스의 宗教와 神話"(W.K.C. Guthrie)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中世그리스 以後에 비해 거의 記錄된 史料를 갖고 있지 못한 初期 그리스歷史 연구의 定石이며 불가피한 접근 방법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本書에서 우리의 깊은 關心을 끄는 것은 팔레스타인 地域의 歷史舞臺 등장과 출애굽과 히브리王國의 成立이다.

이 分野는 大體로 Luther大學 敎授인 아이스벨트(Eisseldt) 교수가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歷史的, 史料的 側面에서만 批判 取扱하고 있기 때문에 聖書的 見解와는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자신도 이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檢討 되어야 한다는 前提를 새우고 있으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가지는 Jacob이나 Joseph의 명칭이 단순히 個人의 이름인지 아니면 部族을 稱하는 尊稱을 갖고 있는지, Exodus

의 年代와 히브리人의 이집트 定着年代에 關한 출애굽기 12장 40절과 1장 8 절 中の 기준 年代문제, 考古學의 資料 확충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 提起와 論 爭點 등을 치밀하게 다루고 있다.

그의 立場은 史學者적 立場에서 現代 的으로 使用可能한 資料에 根據를 두고 論하고 있기 때문에 限界性을 갖고 있고 또 批判반야야 할 많은 要素들을 안고 있으며 聖書를 순전히 사료적 측면에서만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이 分野는 지금 研究課程 중임으로 批判的 자세와 研究를 통해 是正되고 發展되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적어도 本書와 같이 치밀하고 깊게 研究된 分野에서 히브리史가 차지하는 比重이 一般의 측면에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강한 역사적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史가 차지하는 重要性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肯定的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 오늘의 學界에서 이 분야에 대해 進行되고 있는 諸論議와 문제점을 整理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價値를 認定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舊約背景史 研究家들의 큰 挑戰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이야말로 높은 學者的 良心과 오랜 研究의 結晶으로 이루어진 產物이다. 筆者들은 무리한 結論이나 理論을 展開하지 않고, 의문점은 의문점대로, 그리고 論理의 展開는 資料에 근거하던 서, 모든 복잡한 諸문제들을 차분히 질서정연하게 논술하고 있다. 125페이지의 bibliography와 방대한 Index는 이

분야에 더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 얼핏 보기에는 딱이나 복잡한 시대와 地域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으나, 크게 나누어 ① 이집트 ② 小亞細亞의 마타니와 히타이트帝國 ③ 메소포타미아 地域史 ④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地域史 ⑤ 히

브리史 등으로 大別하여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고, 무궁무진한 史的價値를 가지고 있는 그 時代를 이 책을 통해 再演시킴으로써 讀者는 무한한 희열과 일속성을 갖고 이 책을 접하리라 믿는다. (Cambridge Ancient History 시리즈 全帙이 종신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음)

(충신대학 교수)

종려서 목격함

78. 4. 24. 청각
김영진